

여행 | [일본] 오키나와 렌트카 업체 선택, 공항 픽업, 장단점, 주행 방법, 국제면허증 자세한 후기

해외

2024/05/18 08:00

<http://blog.naver.com/ddunidubab/223450266310>

오키나와 렌트카 업체는 정말 많은데,
그 중에 가성비 좋은 곳이 눈에 띄어
얼른 신청한 레몬 렌트카!
한국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이다



오키나와에 와보니 렌트카 업체가
굉장히 많고, 모두 가까이 모여있었다

[LEMON RENTAL 정보]

?? 가격 : 만 4일 / 27만원

?? 주유 : 비용은 4-5만원 사이였고,
마지막날 FULL로 채워주는 방식

?? 픽업서비스 포함 ??

(첫날 나하 공항 - 렌트카 장소 픽업
& 마지막날 렌트카 장소 - 나하공항 픽업)
=>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 가능

?? 중국인 업체

(중국인이 운영하는 업체라는 걸

알고 난 이후, 여행 내내 반신반의 함)

?? 보험

기본 보험이 들어져있으나
포함된 기본 보상 금액이 적음
(밑 사진에서 자세히 설명 !)

?? 필요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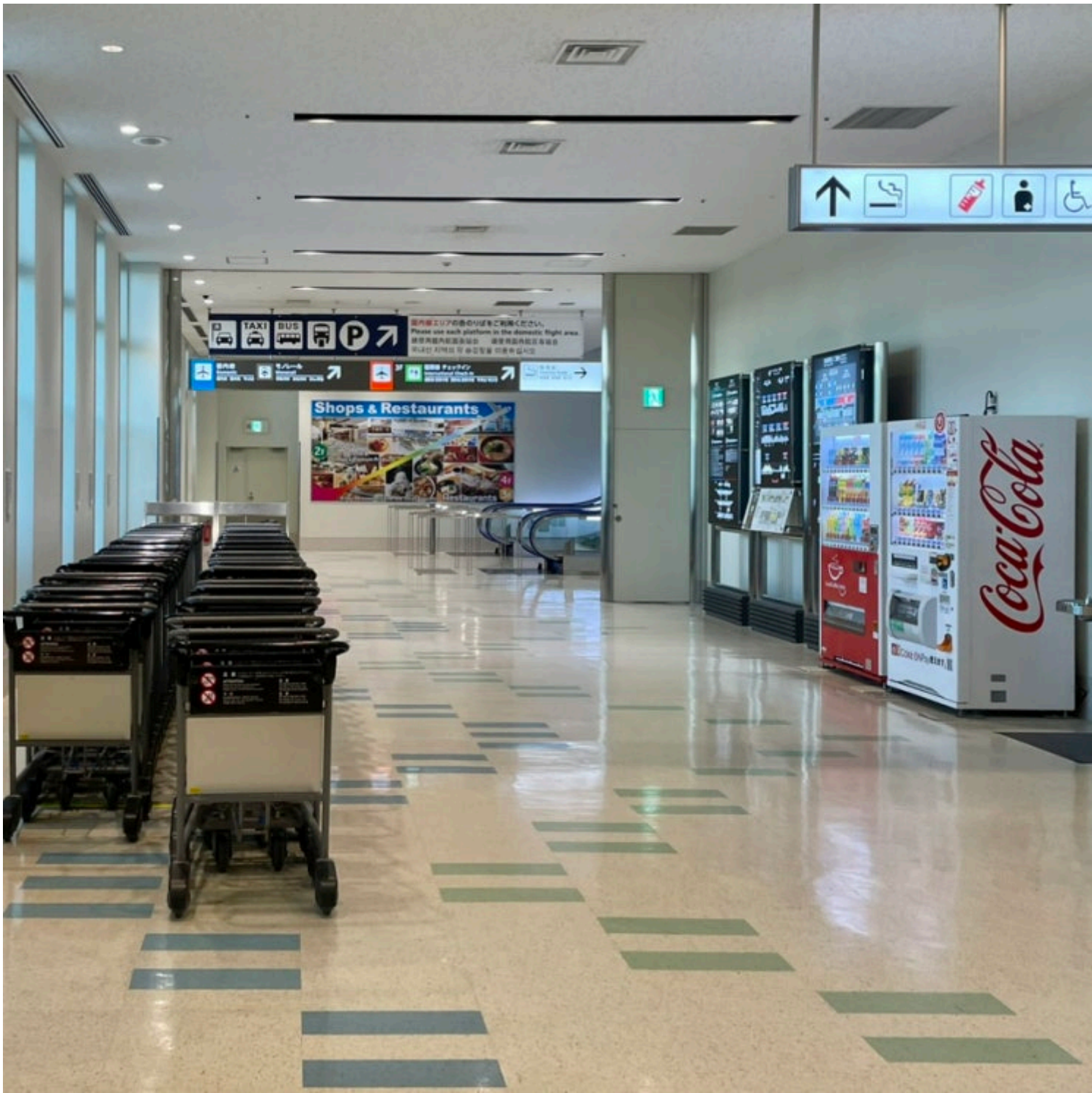
한국 운전면허증, 국제 운전면허증, 여권
(신용카드, 예약바우처는 필요없었음)

일단, 공항에서의 픽업 서비스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었다
영어로 소통이 어려워서, 어느 곳에서
만나야하는지부터 난관이었음 !
연락은 전화 / 카카오톡 모두 가능함



픽업 장소와 시간을 정확히 말해주지 않았고,
픽업 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아서 마냥 기다려야한다
(이건 레몬 렌트카 업체 말고도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 ..)

그래도 픽업 장소는 정해져있으니
미리 알고가면 시간 세이브 될거당 -



짐 찾고 나와서 쪽 직진하면 보이는 곳으로 간 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간다







이후 국제선 항공 카운터가 있는 곳을 지나
국내선 항공 카운터가 있는 곳까지
쭉 직진해야함 ! (꽤나 길었음)





직진하다보면 끝자락 즈음에 6번 출구가 나오는데,
이 곳에서 기다리면 된다
카톡으로 어떤 차량이 갈 건지 사진을 보내주긴하나,
한 30-40분은 기다렸다 ?







이렇게 생긴 6-8인승의 벤이 데리러 온다

나하 공항에서 렌트카 업체까지 가는데

시간은 대략 20-30분 사이로 소요됨 !

벤에서 내리자마자 안내해주시는 분이

예약자 이름을 확인하고, 서류를 들고 온다

모든 과정이 차 트렁크 앞에서 진행됨 ㅋㅋ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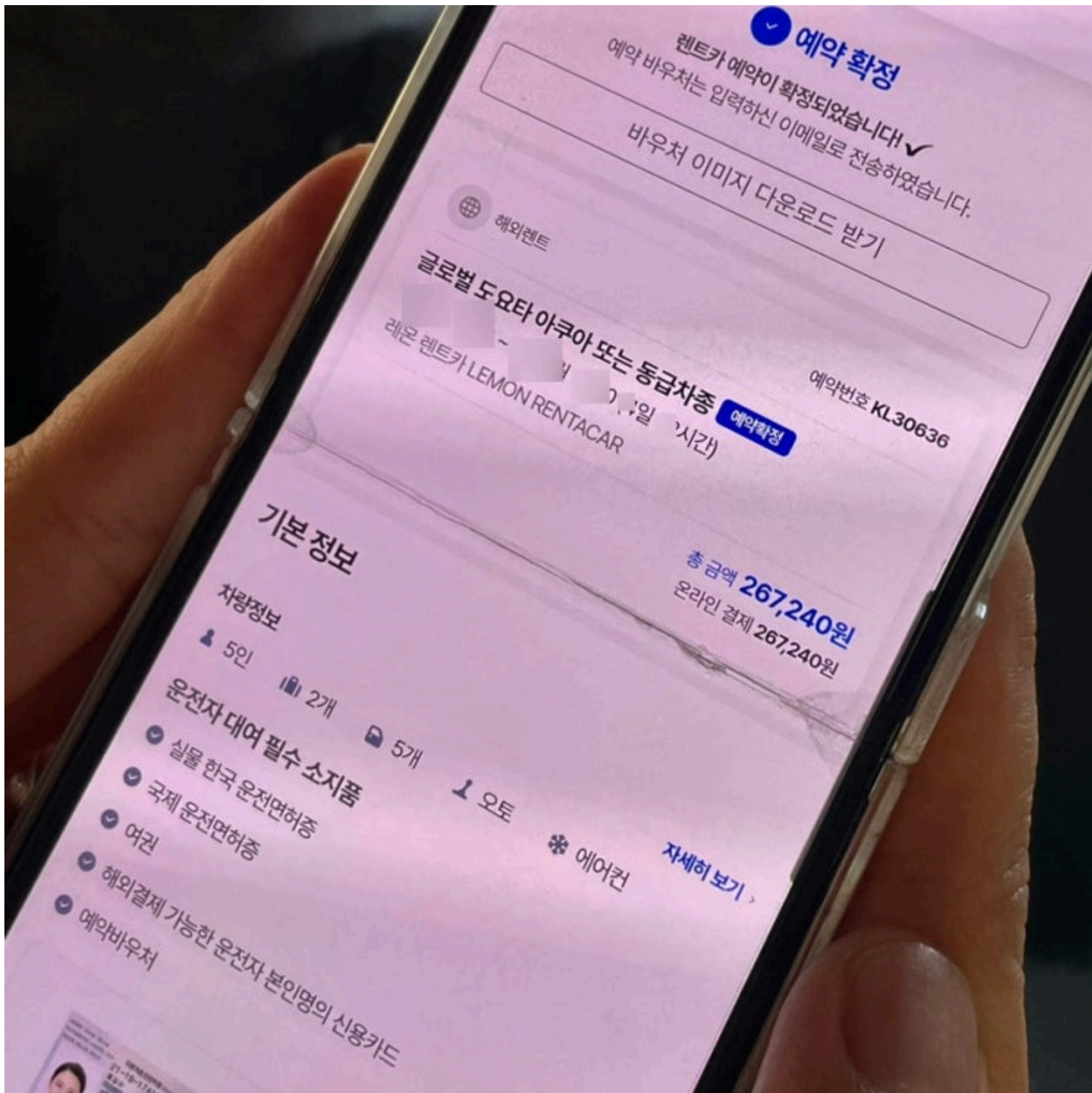
실내로 안 들어가고 야외에서 서명까지 한다

네 무어
그러타구요



이게 바로 우리가 며칠간 함께하게 될 차 !
렌트카업체 장소는 도심보단 시골?느낌이 들었고,
규모가 생각보다 커보였다
차 종류도 굉장히 많았음





우린 참고로, 글로벌 도요타 아쿠아
또는 동급차종을 선택했다

		기본 옵션 ↓			추가 가능한 옵션 ↓									
고객 선택 사항 (이용 금액)		기본보상			면책보상			플러스NOC보상			플러스퍼펙트안심보험			
		0엔			1,100엔 (차량요금이 포함)			1650円			2200円			
상대방과 내 책임이 동시에 있는 사고	보상내용	대물 면책 X	차량 면책 X	NOC X	대물 면책 O	차량 면책 O	NOC X	대물 면책 O	차량 면책 O	NOC O	대물 면책 O	차량 면책 O	NOC O	
	상대가 있는 사고	최대부담액	50,000엔	50,000엔	50,000엔	0 엔	0 엔	50,000엔	0 엔	0 엔	0 엔	0 엔	0 엔	0 엔
	최대자불액	150,000엔			50,000엔			0 엔			0 엔			
자손사고 / 벤조니	보상내용	대물 면책 X	차량 면책 X	NOC X	대물 면책 O	차량 면책 O	NOC X	대물 면책 O	차량 면책 X	NOC O	대물 면책 O	차량 면책 O	NOC O	
	최대부담액	50,000엔	50,000엔	50,000엔	0 엔	50,000엔	50,000엔	0 엔	50,000엔	0 엔	0 엔	0 엔	0 엔	
	일파드차량의 경우	50,000엔	100,000엔	100,000엔	0 엔	50,000엔	100,000엔	0 엔	50,000엔	100,000엔	0 엔	0 엔	0 엔	
100% 내 책임인 사고	최대 부담액	150,000엔			100,000엔			50,000엔			0엔			
	일파드차량의 경우	200,000엔			150,000엔			100,000엔			실비 0엔			

↑ 어떤 사고든 대물 면책은 가능 ↑
 & 차량 면책은 불가하다고 설명

그 외의
문제가 발생
했을 때의
부담액

●バンク ●バースト ●ホイールキャップの紛失、破損 ●車内装備の修理、交換 など

●遠方へのレッカー移動 (1キロ400円から)

실비 청구
예를 들어,
눈길 또는 해변의 모래에
몰려 건인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실비
고객이 부담

**** NOC = 자의든 타의든 사고가 났을 때, 차를 수리할 동안 영업을 못한 부분에 대해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을 뜻함**

※기본보상은①대인보상무제한(한분당) ②대물보상무제한/면책액5만엔(사고한건당) ③차량보상시가격/면책액5만엔(사고한건당) ④인신상해보상3,000만엔(한분당)입니다. ※면책보상 또는 면책보상 플러스를 선택하셨을 시, 자손 사고/벤조니에 의한 차량면책액의 보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물면책, 차량면책은 최대부담금 150,000엔을 넘을 경우 실비처리 됩니다. ※21세이하의 분, 면허취득후 1년미만의 분, 과거 사고기록이 있는 분 등 당사 판단에 부적합하다 인정 될시 가입이 안되실 수 있습니다.

NOC 금액 커버 부분이 다르다

(** NOC =영업 손실보상금, 자의든 타의든 사고 시 수리기간에
영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



우리는 꽤나 오랜 고민 끝에

기본 옵션에 포함된 면책 보상으로 선택했다 ??

車保険のご案内 (CAR INSURANCE)

기초보험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제 1 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이 고객의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면 아무런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2 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만약 경찰이 당신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다면 100% 과실이 아니더라도 고객은 우리에게 함께 100,000 엔과 10,000 엔의 세금보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차량 수리 후 남은 잔금은 예약 어플을 통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제 3 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측이 100% 고객과실로 인정했을 경우 보험회사는 모든 비용을 배상해야 하거나 차량파손보험회사가 배상하지 않고 고객이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상 기초보험의 모든 내용입니다.

상기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저희와 함께 차량을 확인 후 출발 하셔도 됩니다.

차량 안의 휘발유가 현재 가득 차 있습니다. 반납시 차량에 기름을 가득 넣고 반납해주시요.

이건 읽어보면 되는 내용이고,

LEMON RENT A CAR

自動車貸渡証

令和 5 年 月 日 発行

補償コースのご案内

弊社ではレンタカーをお貸しするにあたり、快適にご使用いただけるよう、最善の整備を実施しております。ご使用にあたっては、下記の項目をご確認いただきとともに、安全運転の励行と、取扱いについては十分にご注意をお願い致します。

■貸渡しに関するご確認事項

□ご説明済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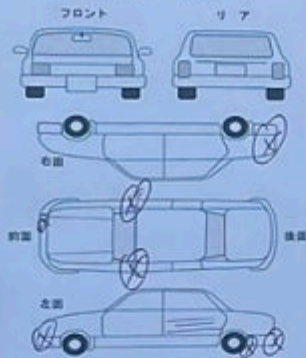
1. 万一、事故等に遭われた場合は速やかに弊社にご連絡ください。
2. 貸出し期間中の道路交通法違反(速度、駐車等)の呼び出しにつきましては、速やかに対処をお願い致します。ETCの不正通過等も行わないでください。
3. 貸出し期間中の転貸や改造等はご遠慮ください。

■ご利用いただくお車

□ご確認済み

車種	借受人
登録番号	6281
貸出しガソリン	E . . . F
貸出し走行距離	k m
返却時走行距離	k m

車内外装チェックシート



線キズ(擦り傷)は線、凹みは○で記載
お客様にて、出発前に外装チェックをお願い致します

お客様名	人数	オプション
便名		

ご利用金額	
基本料金	KL 00k
補償料金	
給油代行料	
小計	
消費税10%	
合計	円
補償内容	基本補償
備考	ガソリン満タン返し 禁煙車 喫煙された場合、NOC代金 2~5万お支払いいただきます。 (電子タバコ含む)

油種 レギュラー (Regular)

LEMON RENTACAR
沖縄県豊見城市与根168
(090-6490-9995)

1. 免責補償

- ①対人 1名につき無制限(自動車損害賠償責任保険による金額を含む)
- ②対物 1事故につき無制限
- ③人身傷害 1名につき3,000万円
- ④車両保険 1事故につき車両時価額

◆超時費用: 30分~3時間以内: 2000円 3時間以上: 一日料金追加

2. 補償適用外のケース

- 車内整備本への損害
- セルフ給油による油種間違い
- 車内喫煙
- キー紛失
- その他迷惑行為など
- 自損事故は安心補償適用外(免責10万)

事故発生時に、事故状況の記録用にお使いください

事故状況メモ			
事故状況	発生日時	氏名	
	運転者氏名	負傷者	詳細
	発生場所		
延出警察	警察名	相手の運転者氏名	
	担当係官名	連絡先 車種・ナンバー 住所	
運転者情報			
氏名:			
住所:			
免許種類:			
免許番号:			

■車事故 110
■人身事故 119

우리가 싸인한 부분을 다시 찍어놓았다

마지막에 가득 주유해야하므로

주유구가 위치 & 주유 종류를

미리 알아놓으면 좋은데, 우리는 RED 였음 !

+ 사고 발생 시 경찰(110)로 무조건 전화해야함

신고하지 않으면 모든 보험이 무효라고 한다

이후 차량이 이미 파손된 부분이 있는지 함께
체크하는데, 작은 스크래치는 넘기고
크게 파여있는 부분 등을 찍고 표시해놓는다
혹시나 몰라서 사진 + 동영상 다 찍어놓음 !

생각보다 주행 방법에 대해선
자세히 알려주지 않으니, 꼭 유튜브 보고 가세용

네 무어
그러타구요



[차 & 도로 주행 관련된 간단 정보]





내부는 이런 느낌 -

옛날 차 느낌이라 DMB ?가 보이고

날짜와 시간도 모두 안 맞지만, 그냥 다녔다 ㅋㅋㅋ

유명하다시피 일본은 좌측 통행인데

운전자 좌석도 우리나라와 반대로 우측에 있다







그리고 사진에서처럼, 우리나라와 다르게
왼쪽에 와이퍼 & 오른쪽에 방향 지시등이 있다
방향 바꾸려다 와이퍼를 작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웃겼다,,, ㅋㅋㅋㅋ 습관이 무서움 !









이 정도만 알면 다니는덴 문제 없을 듯 하다
일본은 초록불 신호에서 좌회전 & 직진 & 우회전
모두 가능해서 처음엔 혼란스럽지만
나중엔 익숙해진다 ㅋㅋㅋ

적응되면, 유턴을 할 필요 없이 원하는 장소로

바로 갈 수 있어서 오히려 편할 때도 많았음 !

이건 후진할 때의 영상인데,

후진할 때 뽁뽁 소리가 난다 ㅋㅋ

어디 닿는게 아니고 그냥 후진하면 나는 소리임

나름 후면 영상도 보여주고 나쁘지 않았다





이 표지판은 '토마레'라고 읽는데,
도로나 표지판에 이런 표식이 있다면
3초 정도는 멈춰서 주변을 살피고,
천천히 가야한다는 신호다
(기억하세요 !)



비오는 마지막 날 차량 반납 후,
벤으로 공항까지 무사히 이동했다 !
혹시나 공항까지 픽업 서비스를 안해주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스무스했다

그리고, 차량에도 아무 문제 없어서

추가 요금도 없었음 !!! ?



무사고로 건강하게 돌아와서 다행 -
오키나와는 차 없으면 여행하기 어려운 곳이란 걸
다시 한 번 더 느껴버렸다

만만사세



레몬 렌트카 경험해본 결과 괜찮으니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ㅋㅋㅋ !
첫 날 픽업서비스가 지연된 것 말고는

알차고 저렴하게 잘 이용했음 -

안 전 운 전 화 이 텅 ?